

**동우컬럼**

십일조를 해야지

이현구 장로가 25년 동안 기른 나무들이 얼마 전에 이식(移植) 작업을 마쳤다. 이것들은 아주 값진 것으로 나중 서울 성전을 지을 때 조경에 쓰일 나무들이다. 이 일에 열 명의 신학생과 뜻이 있는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중 염상섭 장로가 특심을 발휘하여 서울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 나무들을 자기가 매입해놓은 땅에 보관하기로 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일하는 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라며 염 장로에게 돈을 건넸단다. 염 장로가 그 내역을 내게 보고하길래, “염 장로, 그 돈에서 십일조를 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자네를 정직하게 여기실 것일세.”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말에 염 장로가 깜짝 놀란다. 그가 실토하기를 “어차피 이 돈으로 주의 일을 하는 분들 식사를 제공하기에 십일조를 떼다는 생각은 아예 못했습니다.”라고 했다.

사실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올림픽
공원에서 목회할 때의 일이다.

한 번은 이상 중에 소가 나타나 내게 ‘도둑놈’ 하는 거다. 놀라서 ‘내가?’ 하고 묻자 ‘그래, 니가.’란다. 성경에는 ‘십일조’를 떼먹은 자에게 ‘도둑’이라고 했는데(말3:9), 나는 십일조를 떼먹은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도둑놈이라고 했을까 찬찬히 생각해보니 내가 도둑놈이 맞았다. 이유는 이랬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예배 후에 안수를 했는데, 간혹 성도들이 용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옆에 있던 장로에게 건넸다. 그러다 개척교회 목사나 어려운 분들이 와서 형편을 토로하면 받았던 용돈을 건네주었다. 문제는 십일조를 안 떼고 준 것이다. 주의 종에게 준 것은 주의 일이나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거기에 합점이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철저한 십일조를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의 정직함을 인정하셨고, 나를 보증서셨다. 그래서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 중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없을진대(고전4:7), 그중 1/10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도둑놈이다. 도둑놈 되지 말자!

내 생각과 말이 내 인생을 만든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내 생각과 말이 내 인생을 만든다. 내 말(言)이 내가 타는 말(馬)이 되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목사님이 아주 18번처럼 자주 하시는 말씀이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거울을 보고 자신을 격려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사 초긍정의 생각과 말로 하루하루를 그려가시는 것이다.

당시 밖에는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한다. 당연히 기도원식구들은 이미 세팅된 식탁이고 잠시 하는 식사에 굳이 번거롭게 그럴 이유가 있을까, 더구나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러나 목사님이 제안하셨으니 뭐라 할 수는 없고, 목사님께서 제안은 하셨으나 일기도 그렇고 곧 생각을 접으시지 않을까 기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목사님은 명철이를 불러 당신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고, 이에 동의할 얻자 바로 실행에 옮기셨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좀 번거롭기는 했겠지만, 막상 야외식당에 음식을 차려놓고 자연을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삶을 더욱 풍부하게 살찌울 텐데, 많은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서, 변화가 두려워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목사님이 잠언으로 남기신 것이다.

“변화가 두려우면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라.”

목사님은 그래서 오늘도 또 변화를 시도
하셨다. 필리핀(Philippines) 세부(Cebu)
집회를 앞두고 인천교회에서 3주 연속
주일에배가 진행되는데, 오후 3시 예배
도 직접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당
장 실행에 옮기셨다. 그 연세에 정말 힘든



목사님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으신다. 하다못해 호텔 방에 들어가도 가구의 위치를 조정하여 쓰기에 편하도록 재배치하신다. 식당에 들어가도 식탁과 좌석을 재배치하신다. 많은 일행이 따라와서 식사도 함께하지만 목사님으로부터 한마디라도 들으려는 사람들인 고로 가르치기에 좋은 좌석 배치를 하는 것이다. 즉 목사님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미 정해진 환경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나에게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화는 이를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기도원식구들과 함께 식당에 모였는데 이미 식탁에는 음식이 세팅되어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목사님이 음식을 야외로 옮겨서 먹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셨는데,

벗 삼아 식사하니 비록 여러 사람이 음식을 옮겨야 하는 수고는 했지만, 그러한 수고를 상쇄하고도 남을 기쁨이, 색다른 경험이 찾아왔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 사람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다. 목사님이 성공하신 비결 중에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이다. 환경을 주도하려는 노력. 변화가 두려워 현실에 만족하고, ‘그런대로 사시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며 변화를 만들어가기에 삶을, 목회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오신 것이다. 해외집회, 특히 중남미 지역에 나가 현지 목회자들과 식당에 가면 이제 아주 그들도 목사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먼저 좌석을 대형 T자로 배치해놓는다.

생각을 조금 바꾸면 찾아오게 될 인생의

일이고, 그렇게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지만, 목사님은 스스로를 다지고, 또한 교단 목회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실행에 옮기셨다. 리더가 안주하면 조직 전체가 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늘 그렇게 도전적인 자세로 이 교단을 이끌어 오셨고, 그 덕분에 우리 또한 안주할 시간이 없다.

다음 주간은 춘계산상집회가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진행된다(4월 15일 ~ 18일). 목사님은 또 오늘을 마지막으로 아는 항구여일한 자세로 집회에 최선을 다하실 것이다. 모두 시간을 내서라도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충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내 인생은 결국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춘계산상집회

- * 기간 : 2024년 4월 15(월) ~ 18일(목)
* 장소 :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 문의 :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12~13)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소원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들을 기도원으로 불러 부녀 관계를 회복시켰고, 아울러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에게 이제는 딸을 회사로 불러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대로 딸을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이 회사에 나가보니 회사 직원 모두가 그야말로 엘리트였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굴지의 기업에 첨단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니 당연히 엘리트 집단이었던 거지요. 딸이 자신을 돌아보니 그들에 비해 너무 아는 게 없고, 학벌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과 좌절과 열등감에 휩싸였습니다. 딸은 급기야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 아버지가 누구냐?”

“회사 사장님입니다.”

“맞아, 네 아버지가 사장이야. 넌 그의 딸이고. 네 신분을 알아야지. 아무리 엘리트라고 해도 그들은 직원일 뿐이야.”

“아~~~, 그러네요...”

딸은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된 후로 당당해졌고, 딸의 신분을 알게 된 직원들은 당연히 태도가 달라졌다는 후문입니다.

두려움은 삶의 암적 존재다

학벌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아는 게 없다고 사장 딸이 아닙니까? 천만에요. 못나도, 배운 게 없어도 사장 딸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장 딸이기에 잘난 직원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귀하디귀한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1:12~13).

우리가 잘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우리가 아는 게 많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나요? No.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에베소서 1장 4~6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장 딸이 회사에서 주눅 들고, 사원들을

두려워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이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간을 만드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만물 앞에, 만인 앞에, 어떤 상황 앞에 두려워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하나님 아버지가 뒤에 딱하니 버티고 계시는 데 무엇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이 두렵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원수들이요? 그거 티끌처럼 하나님이 불어버리십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사41:11~12).

재앙이요? 그것도 하나님 자녀에게는 엄습하지 못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사43:2).

염병이요? 그것도 하나님이 방어벽을 치십니다. “저가 너를 새 사냥군의 울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시91:3~4).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15:1) 하셨기 때문이고, 이삭이 우물을 팟 때마다 빼앗겼지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창26:24) 하셨기 때문이며,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도 좌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찌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28:15) 하셨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칠 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버지께 고하면 됩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하면 됩니다. 힘든 일이 있걸랑 “아빠가 알아서 해줘요.” 하면 되고요, 두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 같이 가요.” 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제 목회 40년은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를 걷는 힘든 길이었습니 다. 최루탄과 같은 위협, 수많은 검찰과 경찰의 조사, 온갖 누명과 핏박이 난무했었습니다. KGB에도 끌려가고, 제가 머물고 있

던 호텔을 폭파하겠다는 위협, 자동차가 뒤집히고, 비행기가 추락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 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위협당하고 위험에 처하는데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죽는 꼴 보고 있겠습니까? 힘없는 부모도 무슨 짓이든 해서 자식을 살릴진대,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움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싶지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냥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8:15~16).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에,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에 살짝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하여 완전히 남남을 만들어놓습니다.

믿는 데가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악한 마귀가 틈잡니다. 개도 사람이 두려워하는 진동을 느끼는데, 영물(靈物)인 마귀가 우리 마음을 모를 리 없습니다. 사나운 파도도 선장 마음을 읽는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어린 다윗처럼 담대하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도 담대했던 사도 바울을 닮으세요.

사면초가인 상태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앞에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것도 손 하나 안 대고 무너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사12:2).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엡3:12). 할렐루야!

시험(test)

일본 동경예수중심교회의 담임인 김장길 목사님이 신학교 선교학 시간에 특강을 해주셨다.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을 뿐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감동을 드렸다. 김 목사님은 이 장면을 거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테스트(test)를 의미한다.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약1:13)고 할 때의 시험은 temptation, 곧 유혹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실 이유는 없을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지 테스트를 통해 흔들여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김 목사님은 총회장 목사님이 최초의 해외선교로 일본 집회에 나서실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사건을 소개했다. 이미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누누이 들었던 이야기다. 바로 ‘여행을 위하여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는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받고, 정말 여행 가방도 없이 최초의 해외선교지 일본 땅을 밟으신 사건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리타공항에 도착해보니 도저히 상상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벤츠 600 고급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하룻밤에 600만 원이나 하는 호텔, 한 끼 식사에 110만 원이나 하는 고급 요리, 어디 그 뿐인가? 실크 내복부터 정장 의복까지 그야말로 풀세트로 총회장 목사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총회장 목사님은 그 비싼 호텔을 마다하고 교회 성전에서 기거하셨고, 그 비싼 식사는 이미 예약한 것이라 취소할 수 없었다고 했다. 늘 들던 이야기여서 그런가 했는데, 김 목사님은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첫 해외선교에 나서시는 총회장 목사님을 시험한 사건이라 소개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을 때, 신학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지 반문하였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단순한 명령이었지만, 오히려 그러하기에 우리는 준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소한 갈아 입을 속옷, 양말 정도는 챙겼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목사님은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셨고, 이후 전개된 목사님의 해외선교의 역사는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자가 맛보는 형통한 복이라 믿는다.

Henry Han

:: 세상을 보는 창 ::

나는 집착형인가, 주목형인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과 선악과의 탐스러움에 ‘집착’하다가 죄를 짓고 말았다.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망자가 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치기로 4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 모습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결국 부르심에 순종하여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멋지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된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길 때 주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목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묵상은 우리의 산만한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목하기가 쉽지 않다. 분주함과 바쁜 삶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매일 묵상의 시간을 내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하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익숙한 것들이 낯설어질 때까지 응시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 있다. 익숙함은 매너리즘을 만들고, 기대감과 설렘이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익숙함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주목하는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다. 주목하여 깊이 보라는 말씀이다. 늘 보고 지나치던 것에 다시 집중하고 주목하면 한 송이의 들꽃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분주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 말씀에 주목해보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위해 우리는 시선을 돌려 말씀에 집중하자. 분명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영향력 있는 자가 되자!

지난 6일, 서울예수중심교회 청년부에서는 이시대 목사님을 초청하여 ‘젊은이를 위한 1일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설교의 주제는 ‘나도 영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로 MZ세대들에게 비전과 도전 정신을 불어넣는 장엄한 설교였다. 목사님은 요셉의 일화를 통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다. 그는 4명의 어머니를 둔 불완전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꿈 사건으로 이복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 버려지고 심지어 타국에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다. 이후 보디발 가정의 집사가 되었지만, 또 다시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요셉이 당대 강성대국 이집트의 총리라는 위대한 사람이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요셉은 자기에게 다가온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이겨내었다. 비록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냈다. 이에 목사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요셉을 보고 힘과 용기를 가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둘째로, 요셉

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다(창39:9). 행로(行路)법칙, 총회장 목사님은 일단 가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요셉 또한 행로법칙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다. 어디 요셉뿐이겠는가? 모세, 여호수아, 다윗도 환란의 중심에 늘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약4:8). 이날 설교를 듣고 청년들은 세상에 나가 반드시 영향력 있는 자가 되리라 다짐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 꿈이 있고 길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자. 하나님 말씀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자! 당신도 영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청년부



:: 생명의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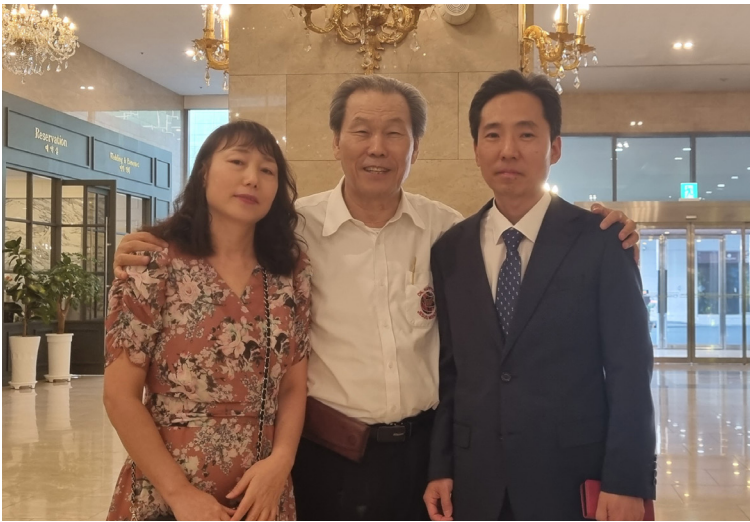
명실상부(名實相符)

선거철 공약이 난무했던 요즘이다. 새로운 희망으로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도 하지만, 신뢰도에 의문이 생길 때는 도리어 피로감이 쌓이기도 한다. 자기 공약에 걸맞는 이름값을 해야 신뢰도가 쌓일 텐데 말이다. 사실 이름값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자기 이름이 보증수표가 되려면, 약속한 일을 성취해 내는 항구여일한 성실성과 진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여 표나 얻고 정치 이력이나 쌓으려 하지 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명실상부하게 자기 이름의 명예를 지켜주는 정치인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약속을 잘 지키는 길은, 선불리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진실을 보여주는 지혜라는 총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말이다.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을 때를 가리켜 우리는 ‘명실상부(名實相符)’하다고 말한다. 이름과 그 실상이 일치되는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기에, 그분만이 진정으로 명실상부한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이라고 약속하셨기에,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부조화 없이 그 역

할을 여전히 신실하게 감당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모순이 많은 존재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에게선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불일치가 일어난다.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고, 마음과 의지가 따로 놀고, 머리와 의지가 제각각 따로 노는 부조화 말이다. 스스로를 속이며,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부조화가 자연스럽다. 타락의 증상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 그런 부조화를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조율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신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보다 인간을 더 의지한다면 그리스도를 더 믿도록 연단하신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없다면 거의 죽었다 살아날 부활신앙도 체험시키신다. 헬라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자기와 동명이인인데 매우 불성실한 부하에게, 이름을 고치든지, 삶을 뜯어고치든지 둘 중 하나를 바꾸라고 꾸중했다는 일화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과 권세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송직화 목사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역사가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두 번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모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간증을 지면을 빌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영월예수중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장기백 목사를 만나 결혼하여 지금은 사모로 사역을 돕고 있는 김예향 사모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 잠실학생체육관 집회에서 성령을 받고 전라도 정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갑자기 오른쪽 늑골이 아파서 엄마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폐사진을 보여주시고, ‘땀을 살리고 싶으면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며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읍 아산종합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결핵성 늑막염으로 판명되었고, 늑골에 물과 고름이 찼는데 이것이 굳어버려 이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으니 큰 병원에 가보라며 전주예수병원을 소개해주시고 소견서도 써주셨습니다.

저는 심한 고열에 시달렸고 먹지를 못해서 10kg 가까이 살이 빠졌을뿐 아니라 생리조차 불순한 상태였습니다. 시골 동네에서는 누구 집 딸이 죽게 생겼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때 서울예수중심교회에 다니는 큰언니가 병원에 내려와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으니 가자고 했고, 저도 목사님께 안수받으면 나오리라는 믿음이 생겨서 엄마 몰래 퇴원 후 택시를 타고 장성기도원으로 도망쳐왔습니다. 그때 우리 시골 집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초상집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끼던 아픈 막내딸이 큰딸과 함께 병원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오시는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목욕해.” 하시는 말씀에 순종

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믿지 않는 아빠가 끈질기게 병원에 가자고 해도 저는 굴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고쳤어.”라며 병원 가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지금도 X레이를 찍으면 아팠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기적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로서 첫 사역지인 영월에서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강원도 시골인 영월에 와보니 15평의 아담한 규모의 교회와 한 가정의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이런 시골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나 싶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기도와 전도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초석 목사의 ‘성공을 위해 선택했으면 집중하라’는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나는 세상일 안 하고 주의 일만 전념하겠으니 싫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혹시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으면 까짓것 굶으면 되고, 설마 주의 일 하는데 하나님이 굶게 하시겠어요?”라고 목사님에게 말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전단지를 들고 교회 앞에서 전도를 시작하여, 근처 노인정을 매주 찾아가 사탕, 과자, 음료수를 돌리며 전도하고, 시장 앞에서도, 또한 전도할만한 집이면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3개월 정도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 지쳐갈 즈음, 하나님께서 전도의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교회 주변에서 폐지를 줍는 아주머니에게 만날 때마다 감자, 김치, 쌀, 라면 등등을 주면서, “우리 교회 꼭 한번 나와보세요.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라며 3개월을 전도했는데, 평소 쌀쌀하게 전화를 받던 분이 어느 날 저녁 수요일에 때 나와 있어서 깜짝 놀라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첫 열매에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더 적극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 그 집에 들어가서 전도하였고, 매주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

고, 풀도 뽑아주고, 밭일도 해주고 했더니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그분의 부모님 모두 예수를 영접하시고 소전하셨습니다. 고물상 하던 타 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분의 아내를 전도하려고 고물상에 가서 전선 줄의 피복을 벗겨주면서 전도하였고, 어느 노부부를 전도하려고 그 집에 가서 셋방을 꾸미기 위해 도배와 장판, 문짝, 필름지, 타일, 시트지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시공해드리고, 당근마켓에서 순간온수기를 구매해 온수기도 달아드리며 전도하였습니다. 또한 갓 구치소에서 나온 분을 전도하려고 반찬을 해서 나르고 그분의 옷과 신발을 사드리면서 전도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영혼 구원의 열정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지 물질을 대는 장로님 부부를 보내주셨고, 집사님 부부도 보내주시고, 젊은 아이 엄마도 보내주시고, 학생들도 보내주시고, 작은 교회에 전도사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듯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케 하시며 2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시켜주셨습니다. 작은 교회라 여러 어려움에 더하여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셨고,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집사님이 자식이 용돈을 백만원 쥐서 어느 목사님께 용돈을 드릴까 기도하는데 제 얼굴이 화면처럼 지나가더라면서 보내주셨고, 어느 날은 교회 다니지 않던 아는 언니가 갑자기 전화해서는, “며칠 전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는데, 이제부터 너에게 십일조를 보내주겠다.”라며 삼백만 원을 보내주시는 등,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금은 장기백 목사님과 함께 꿈의 계시를 따라 울산에 와서 총회장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울산 백향예수중심교회를 개척하여 교회 건물을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모두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 인근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와 피검사를 하였는데, 난소 양쪽에 각각 3.2cm, 2cm의 혹이 있고, 피검사 결과 수치가 좋지 않아서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울산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역시 암일 가능성이 높으니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작년에 제전 산부인과에서 검사했을 때는

혹이 너무 작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1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크게 될 수 있다니 놀랍고 한편 두려웠습니다. 암이라는 말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니 두렵기도 하고 억울하면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고쳐주실 거야!’ 하는 두 마음이 싸우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나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목숨 걸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의 병을 고쳐주신 기적의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목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 목사님께 연락하여 전화로 귀신을 쫓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병이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하였고, 저는 “아멘! 아멘!”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든든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죽음을 생각하는 병 앞에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 후 평안해진 마음으로 울산대학병원에서 3월 22일에 1차 난소 수술(혹 제거 후 조직검사)에 들어갔는데,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저에게 “1차 난소 수술 뒤에 20분 지나서 조직검사를 하고, 바로 자궁 전이 수술에 들어갈 건데 동의하냐?”라고 물었고, 저는 “아니요. 저는 그 수술은 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수술실에서 다들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어서인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고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수술 후 결과를 보러 4월 4일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자궁 내 난소 사진을 보여주면서 수술하려고 보니 혹이 없었다고 합니다. 혹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당황하시고 의아해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병원에서는 수술비로 결제한 병원비도 다 환불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한번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일에 더욱 더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총회장 목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울산 백향예수중심교회 김예향 사모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노랑진 교육관) 유튜브 생방송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